계시록 해석의 혼돈과 공허

(계6:1~2)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계시록 해석의 혼돈과 공허>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은 일곱 봉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증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 묘사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계시록 전체에 대한 해석이 현재 교회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상황이 얼마나 혼돈과 공허와 암흑의 카오스 속에 놓여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해석해 나갈 때에,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이즈음에서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해석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현재의 계시록 해석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암흑, 카오스의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본격적인 계시록의 내용, 장차 되어 질 일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이 해석에서부터 공허가 시작되고 혼돈이 시작되고 암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백마 탄 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결집 됐다고 할 만한 결론으로서의 해석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백마 탄 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로마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그러면 로마나 로마 제국이 다스리지 않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는 이 백마 탄 자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복음이 재앙을 갖고 온다는 말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 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좀 더 보편적으로 악의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복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석이랄 것도 없고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으니까,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포기한 상태인 것이지요.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 이게 장차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입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정복자는 계속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앞에도 전쟁과 정복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화평을 제거하는 검을 든 붉은 말을 타고 온 자도 전쟁을 의미해서 그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5-6절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라고 나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와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 보리 석 되라는 것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 지평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외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정복자가 있다든지 기근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계시록과 같은 전무후무한 계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보릿고개를 지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기근이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잘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 기근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흰 말 탄 자 한사람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떤 공감을 이룰만한 결집된 결론이 아직 없는 거예요. 흰 말 탄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씀 하신 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읽는 자는 어떻게 읽습니까? 뜻도 의미도 모르고 읽기만 하면 됩니까? 듣는 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외계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지키기는 뭘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상황을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흰 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로마나 로마 제국이라고도 하고, 역사 속에 나타날 정복자라고도 하고, 악의 세력이라고도 하니까 뭘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복 받기는 틀렸지요. 복 받기는 틀렸습니다.
이 일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흰 말 탄 자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장까지.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까지 혼돈스러울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18장까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니까, 계시록의 존재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시록의 이해가 혼돈(카오스)으로 빠져들어 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적 공리(公理)를 생각해봅니다.
공리가 뭐죠? axiom인데, 수학에서 공리의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입니다. 그것을 axiom이라고 해요.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를 근거로 해서 다음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세워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명한 명제, 이런 명제가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접할 때에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공리는, 모든 성경의 해석은 해당 되는 성경 구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한다는 공리입니다.
이것을 반박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또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뭔가 알고 영감을 얻고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구약을 발견하고, 구약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역사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관념적, 영적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방법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구절구절, 문단 문단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게 타당하고, 이게 공리로서 요한계시록에 적용 되느냐 하면, 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풀려야 장차 일어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의 관계 속에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대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과거적 해석이고, 미래적 해석이고 하는 방법론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다섯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계시록 해석에 네 가지 방법론이 동원된 이유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망 받는 영적인 믿음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네 가지 해석방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axiom은, 이 예수님을 찾아내야 한다는 첫 번째 공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이어져서 나타나는 계시록 해석이 카오스로 빠지게 된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해석자의 마음의 처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이란, 이해해야 될 글과 문장을 해석자의 마음의 처소,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연관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석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글이나 문장을 봤을 때에 그 글이나 문장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해석인데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문장과 글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해석과 연관 지을 때에 두 번째 공리가 뭐겠습니까?
마음의 처소 문제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면서 계시록을 보고 있고, 해석하려고 하고, 계시록을 듣고 읽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에 두고 있으면 계시록이라는 글, 계시록에 담긴 문단, 문장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처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처소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하시고,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사도바울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될 경우에는,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두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딛고 사시는 이 지상에서는, 민족과 당신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는 것과, 민중들이 경제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들이 다 드러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상관하신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입을 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지,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역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맞추어서 당신이 판단하면서 행동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 하늘에만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상황은 하나님아버지가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아버지가 계획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 땅을 볼 필요가 없고, 나는 하늘에 마음을 둔 채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 환란이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든,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늘에 마음을 둔 자로서 땅에서 발을 떼고 있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발을 떼고 손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둔 채로 땅을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연구서들을 보면 온통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에 몰두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두 번째 공리가 성립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다. 히틀러였다. 누구였다.'라고 하면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걸 꿰어 맞추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세 번째 공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시록에 관한 공리예요.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록 제일 첫 번째 장에서 하늘에 승천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주인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영적으

로 보일 수 있는 긍정, 부정적 일곱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둬야할 처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22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리로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사실로서, 요한계시록과 관계된 사실로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의도는 재림신앙을 살려내고 굳건하게 하자는 것임에 반박의 여지가 없고 자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림 사건 때까지의 이야기가 장차 일어날 일로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시점까지 우리 마음이 재림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 마음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언제나 지금의 마음에 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도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은 재림 때까지 우리 마음의 징검다리예요. 우리 마음이 재림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리에서 어떤 문제가 파생하느냐 하면, 재림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재림을 기대하게 하는 신앙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에 둘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재림을 바라보는 방향이 과거-현재-미래라는 지상의 수평선상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우리는 이 수평적 차원에서 앞을 보면서 재림을 생각합니다. 이게 난센스라는 겁니다.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공리가 뭐죠?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은 마음의 시선이 언제나 위를 향해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에 위를 보며 살다가 위를 보며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위를 향하여 살다가 위를 향하여 죽는 것이 운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자꾸 시간의 수평적 상황에서 재림의 때가 지금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재림과 지금 나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장차 일어날 내용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재림이 미래에 일어나고 시간이 다가오니까 미래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봐야지.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이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나도록 백마 탄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앞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내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약혼한 남자가 미국으로 두 달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미국을 바라봐야죠. 약혼자가 있는 미국이라는 처소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온 마음을 직장에 있는 미스터 김에게 쏟으면서 약혼자를 기다린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 재림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기록이 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게 두 번째 공리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하는 두 번째 공리와 맞아 들어가고 모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도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시간의 흐름 밖에 있는 하늘입니다. 세월을 타지 않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 밖에서 우리에게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시간은 숫자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12시부터 1시 2시로 숫자상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은 사건과 맺어진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과 시간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재림을 통해서 끝이 날 시간이기 때문에, 태양력이나 음력이 아니라 재림적 시간 위에서 사는 것인데, 그 재림의 시간은 앞에서 우리에게로 미래가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나에게로 미래가 오는 그런 시간대를 산다는 겁니다.
미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장차 일어날 일도 우리가 수평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앞으로 볼 때에는, 그 앞과 지금의 간격 안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미래가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위를 바라 볼 때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지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은 그 미래가 존재하는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 땅 사이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이 있습니다.
그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 공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놓여 진 자리이고, 마음이 공중에 있으면서 마음의 시선을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가 결정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하는 것이.
하늘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땅에 두고 있었으니까. 땅에 둔 마음을 십자가에서 끌어 모으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공중에 있는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하늘과 땅, 공중, 이 세 개의 차원이 겹쳐져 있는 사이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우리로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까 시간의 수평적 흐름선상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부터 요한을 중심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시록이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렇게 공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계시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리를 붙잡고 우리가 해석을 해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해석적 자질이 미천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공리를 놔 버리면 신앙인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니, 신앙인 됨을 놔버리면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도 어렵고 상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뛰어넘어가더라도, 이 세 가지 공리는 버리지 말아야죠.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내일부터 하나씩 인을 떼어가는 과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신앙의 공리를 잃어버리면 계시록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신앙인 됨을 포기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 공리를 마음에 기억한 채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던 그 때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